

작품없어 못팔 작가들...예술과 현실 접속하다

CULTURE

2025년 8월 5일 화요일

광주시립미술관 '그리고, 하루'전 11월 23일까지
김선우·문형태·정성준·정승원씨 등 작품 출품
개관 33주년 기념행사...개막식에 묻혀 아쉬움

광주시립미술관이 1993년 8월 1일 개관돼 올해 3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젊은 작가 4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막됐다.

보통 시립미술관 전시하면 중견이나 원로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만 이번에는 작품이 없어서 못팔 작가들과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점차 영향력을 키워온 이들도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그리고, 하루'라는 타이틀로 마련한 현대미술기획전이 그것으로 지난 7월 29일 개막, 오는 11월 23일까지 미술관 본관 3.4 전시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김선우 문형태 정성준 정승원 등 네 명 작가의 회화 및 설치 작품 50여점을 접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1일 작품설명회에 이어 1일 개막식이 펼쳐졌다. 하필이면 개막식과 33주년 기념식 자리를 함께 마련하면서 400여명 안팎의 미술인들이 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 집결.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개막식 후 33주년 기념 자리는 성악 공연과 케이팝 열전 등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개막식에 묻혀 전혀 돋보이지 않았다.

개관하던 해인 1992년생 미술인이 다른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케이팝을 열전하며 그 의미를 되새

겼지만 그래도 33주년 기념식 자리치고는 너무 프로그램이 부실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전시는 지난 31일에도 봤지만 개막식이 진행되는 사이 다시 전시장에 들러 천천히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네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자아를 향한 항해에서 출발해 모두의 공존을 위한 여정으로 이어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그 사이에는 일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담은 작품들이 배치돼 삶에 대한 다양한 결을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정승원과 정성준 작가가 40대 대표 지역작가들인 만큼 아예 전시장 전면에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먼저 전시장 두번째로 배치된 교과서 수록작가인 정승원 작가는 평범한 하루의 단면들을 밝고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하며 삶 속 기억에 스며든 따뜻한 감성을 되살리며, 기억을 매개로 삶의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

화면에 담긴 장면들은 독일 유학 시절의 일상, 가족과 함께 한 여름 날, 아쿠아리움을 찾았던 순간처럼 작가에게 익숙했던 풍경이 소재다.

독일 유학시절의 기억들을 투영된 작품들 역시 몰입시켰지만 그의 작품 '기억의 도시'는 그가 자라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리고, 하루'전 개막식과 개관 33주년 기념식 자리를 지난 1일 오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미술인들이 집결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면서 경험했던 광주와 모습들이 원형의 작품에 투영됐다. 뻣뻣하게 들어찬 도심의 건축물 사이로 선 도로로 움직이는 경전차가 움직이고, 중의공원 팔각정과 중심사 일주문 등 시민들이 알만한 시설들이 작품 속에 재현돼 말 그대로 우리들의 일상을 재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시장 네번째로 배치된 교과서 수록작가인 정성준 작가(전남대 교수)는 도시 속 동물들의 유토피아를 향한 여정을 통해, 공존의 가능성과 생태적 회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기후 위기의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동물의 시선에서 유쾌하게 상상해온 작가는 화면 속 동물

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서로를 위로하며 인간을 대신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실천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경고를 넘어 생태적 회복에 대한 인식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제시한다.

기존의 트랩 작품들도 눈길을 붙잡았지만 코끼리 다섯마리가 뿌연게 오염된 도심 외곽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환경 위기의 심각함을 설파하고 있는 '그럼에도 걷는다'는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그가 북경 유학 갔을 당시 북경의 모습이 화폭 속 모습과 같았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전시장 첫번째로 배치된 김선우 작가의 작품은 현실에 안주하며 비행 능력을 상실한 도도새를 통

해 현대인의 꿈과 가능성, 자유의지를 환기하고 있고, 전시장 세번째로 배치된 문형태 작가의 작품은 가족과 친구, 동료 혹은 스쳐간 인연들 사이에서 생생한 감정의 편린들을 조형적으로 포착하며 관계가 만들어내는 정서의 층위와 삶의 양가성을 유쾌하면 서도 서정적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각자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되물고 있다. 제목에 쓰인 '그리고'는 멈추지 않는 삶의 흐름이자, 하나의 장면 위에 다음 장면을 겹쳐 그려나가는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유기전이 사랑을 배우고 가족되는 여정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심명자 이사장
슬픔 극복하며 힘 전하는 그림책 선택

(사)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인 광주 출신 동화작가인 심명자씨가 최근 슬픔을 건너 회복하는 힘을 전하는 그림책 '내일도 산책' (찰리 북 刊)을 펴냈다.

여러 모임을 만들고 이끌면서 30년 가까이 독서 운동과 그림책 확산에 힘쓰는 저자의 이번 그림책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할아버지를 계속 기다리는 시골집 개가 마음에 남아서 쓰기 시작, 우리가 내미는 다정한 손길이 서로에게 기쁨 언덕이 되고, 약자의 결을 지켜 주는 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그림책은 버려진 개가 만나고 헤어지면서, 사랑을 배우고 가족이 되는 한편, 슬픔을 함께 건너는 개와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된다. 건이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유기전 건이의 시집에서 펼쳐진다.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뛰어노는 게 꿈인 강아지는 다리를 다치고,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난다. 노부부는 강아지의 상처에 새살이 돋도록, 닫힌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틔우도록 정성껏 돌본다. 어느 날, 노부부는 강아지를 '건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된다. 날마다 두 번씩 편안하고 다정한 산책길을 나선다. 일상이 평화롭고 파사롭던 어느 날, 이들에게 슬픔이 찾아온다.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무겁게 느끼던 할머니와 건이가 슬픔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움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탐색하면서 사랑은 그리움을 통해서도 빛을 내며 반짝이고, 그 마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수용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특히 건이가 우연히 만난 노부부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그들의 가족이 돼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뤄 나가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할아버지의 죽음과 건이가 겪는 슬픔을 답답하면서도 세련된 화면 강약과 프레임들 통해 담아냈다.

독자들은 리뷰를 통해 "벗꽃길을 걷는 노부부와 강아지를 보며 편안한 미소가 지어진다. 일상의 행복과 평온한 삶의 모습이다", "마냥 슬픔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회복은 그렇게 찾아온다. 그래서 계속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사랑이 새롭게 찾아온다. 삶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도 아름다움이 되기도 한다. 심명자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손을 내밀었더니 어느새 나에게 다시 위로를 주었다. 반려 동물을 키운 경험이면 꼭 책겨주어야 하는 책!! 마음을 위로해주는 멋진 책이다"라고 각각 밝히고 있다.

심명자 작가는 그동안 '타인의 알', '타타의 커다란 날개', '최고대장 토치', '람다의 분홍풍선' 등을 출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핑크퐁 아기상어, K팝 최초 '5X플래티넘' 인증

(영국음반산업협회)

'아기상어 푸루루푸루'라는 중독적인 소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가 K팝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가 K팝 최초로 영국음반산업협회(BPI)로부터 '5X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BPI는 싱글의 경우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을 종합 환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실버(20만 유닛)·골드(40만 유닛)·플래티넘(60만 유닛)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5X 플래티넘 인증은 플래티넘 기준치의 5배인 300만유닛을 달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K팝을 포함한 한국 엔터테



인먼트 업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BPI의 5X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노래가 됐다. 전 세계 아동 음원 중 이 협회의 5X 플래티넘을 달성한 사례 역시 처음이라고 더핑크퐁컴퍼니는 밝혔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핑크 베놈' 뮤비 10억뷰...자체 통산 9번째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0억건을 돌파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0시 52분께 10억뷰를 돌파했다. 이는 2022년 8월 공개 이후 약 3년만이다. 블랙핑크는 이로써 '뚜두뚜두'(23억뷰), '킬 디

스 러브'(21억뷰) 등을 비롯해 총 9편의 10억뷰 이상 영상을 보유하게 됐다.

블랙핑크가 보유한 1억뷰 이상 유튜브 영상은 총 50편으로, 공식 채널 누적 조회 수는 395억회다. 채널 구독자 수는 9820만명으로 전 세계 가수 가운데 1위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인증기관 지정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인증기관 지정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인증기관 지정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